

## 学生発表1 「ボリビア・オキナワ移住地における継承語の現在」

학생발표1 「볼리비아/오키나와 이주지에 있어서의 계승어의 현재」

総井清香 (かせい・さやか)／筑波大学日本語・日本文化学類・3年／쓰쿠바대학 일본어・일본 문화학류・3학년)

本発表は南米ボリビア東部の熱帯地域に位置するオキナワ移住地における継承語としての日本語教育の現状と課題を論じる。オキナワ移住地への計画移民は、沖縄が日本に返還される前の琉球政府とボリビア政府の間で1954年から1964年まで行われた。現在、移住地では大規模農業が盛んであり、雇用主が日系人、労働者がボリビア人という階級関係が見られる。日系人は移住地の中心に集住し、日本語とスペイン語の両方が話されている。移住当初、継承語教育には力が入られていなかったが、1986年に沖縄県との間での教師派遣制度をきっかけに本格的に継承語教育が始まり、日系人の経済力の向上や日本に出稼ぎに行った際の成功体験が継承後教育を後押し、移住地の日本語力の向上に繋がった。

主な調査地のヌエバ・エスペランサ校は午前中にスペイン語でボリビアの正規の授業を行い、午後に継承語教育を行っている。継承後教育の授業は日本の教育課程を行う「日本語」「音楽」「体育」と、移住地独自の「三線」「エイサー」からなり、特に後者は日系文化を継承するだけでなく複数文化を受け入れる下地となっている。初等教育は、複数の文化、言語が入り混じる移住地に生きる子どもたちを日本語を話す日系社会の一員とすることで将来の職の安定や高い給料につなげ、また、国際化が進む中で多文化と共生する力をつけさせるために重要な役割を担う。

調査から見えた課題として、教師不足とボリビアの教育法改正による移住地人口の減少がある。2011年に義務教育期間が12年に延長されたが、ヌエバ・エスペランサ校の最高学年は8年生であるため、移住地外の学校へ転校したり、それに伴い移住地外へ転居する家庭が増えている。移住地の多文化共生社会を維持するために継承語教育は必要不可欠であり、その発展と運営のためには、日本政府やJICAと連携し教師研修や学習奨励活動を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

본 발표는 남미 볼리비아 동부의 열대 지역에 위치하는 오키나와 이주지에 있어서의 계승어로서의 일본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논한다. 오키나와 이주지로의 계획 이민은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기 전인 류큐정부와 볼리비아정부 사이에서 1954년부터 1964년까지 이루어졌다. 현재, 이주지에서는 대규모 농업이 번성하고 있어 고용주가 일본계 사람들, 노동자가 볼리비아인이라고 하는 계급 관계를 볼 수 있다. 일본계 사람들은 이주지의 중심에 집중해 거주하며 일본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사용한다. 이주 당초 계승어 교육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1986년에 오키나와현과의 사이에서 교사 파견 제도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계승어 교육이 시작되어 일본계 사람들의 경제력 향상이나 일본에 돈벌이를 하러 갔을 때의 성공 체험이 계승어 교육을 밀어주고 이주지의 일본어력의 향상으로 이어갔다.

주요 조사지인 누에바·에스페란사학교는 오전 중에 볼리비아의 정규 수업을 스페인어로 실시하고 오후에는 계승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계승어 교육수업은 일본의 교육과정인 「일본어」「음악」「체육」과 이주지의 독자적인 「산신(三線)」 「에이사」로 이루어지며 특히 후자는 일본계 문화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복수 문화를 받아들이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초등교육은 복수의 문화, 언어가 뒤섞인 이주지에 사는 아이들을 일본어를 말하는 일본계 사회의 일원으로 함으로써 장래의 직업의 안정이나 높은 급료에 연결시키고 또한 국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문화와 공생하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사에서 알게 된 과제로서 교사 부족과 볼리비아의 교육법 개정에 의한 이주지 인구의 감소가 있다. 2011년에 의무교육 기간이 12년으로 연장되었지만 누에바 에스페란사학교의 최고 학년은 8학년이기 때문에 이주지 외의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그에 따라 이주지 외에 이사가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주지의 다문화 공생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계승어 교육은 필수적이며 그 발전과 운영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나 JICA와 연계하여 교사 연수나 학습 장려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学生発表2 「韓国マスメディアが異文化理解に及ぼす影響」

학생 발표 2 「한국 대중미디어가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禹熙彬 (ウ・ヒビン/韓国外国語大学経営大学 経営学専攻 二年)

우희빈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2학년)

大韓民国行政安全部『2019地方自治体外国人住民現況』によると、現在韓国に居住する外国人住民は221万6,612人で、200万人を超える数値であることが調査で分かった。そのうち、外国人住民の子女25万1,966人を除いた数のうち、朝鮮族は約32%と最も高い割合を占めている。朝鮮族の流入は年々増えているが、韓国での朝鮮族に対する認識は依然として否定的に捉えられている。これに対する原因の一つは、朝鮮族のイメージがマスメディアで否定的にステレオタイプ化されていることにありとみることが出来る。例としては、2017年に公開された映画「青年警察」で、実際の場所と名称をそのまま使い、大林洞(テリムドン)に対する否定的な描写と実際とは異なる朝鮮族の暴力的な姿を表現することで、朝鮮族の犯罪に対する恐怖を増幅させたことがある。これに対し、朝鮮族の団体と大林洞の住民たちは、映画制作会社を相手取り損害賠償を請求した。二審裁判の結果、裁判所は映画製作者に謝罪と再発防止の約束と和解勧告を決定した。しかし、このような映画やドラマなどにより、朝鮮族の否定的なイメージは韓国社会に刻み付けられたといえる。現在の韓国社会では、外国人住民は地域共同体の住民であり、共に生きる隣人であるという認識とともに、お互いを認め合う姿勢が必要である。今回の発表ではマスメディアで表現された朝鮮族のイメージを調査し、「表現の自由」と「人間の尊厳」の境界線が何であるかを探ってみた。そしてマスメディアが多文化共生社会を肯定的にリードしていくべき方向と、韓国の健康な多文化社会を築くための姿勢について共に議論したいと思う。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21만 6,612명으로 200만명이 넘는 수치로 조사됐다. 그 중 외국인주민 자녀 25만 1,966명을 제외한 숫자 중 조선족은 약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해마다 조선족의 유입은 늘어가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는 조선족의 이미지가 대중 미디어에서 부정적으로 집단화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예시로서, 2017년에 개봉한 영화 <청년경찰>은 실제 지역의 장소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대립동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와 실제와는 다른 조선족의 폭력적인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조선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킨 일이 있다. 이에 대해 조선족 단체와 대립동 주민들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2심 재판 결과, 법원은 영화 제작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과 화해 권고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와 드라마 등에 의해 조선족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한국 사회에 각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주민들을 지역공동체의 주민이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서로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발표에서는 대중 미디어에서 나타난 조선족의 이미지를 조사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의 경계선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중 미디어가 다문화 공생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향과 한국의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세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 学生発表3 「日韓のヴィーガンに対する態度の差異」

학생 발표 3 「한일의 완전채식주의자에 대한 태도 차이」

大城ひろ乃 (おおしろ・ひろの／筑波大学 日本語・日本文化学類・3年／쓰쿠바대학 일본어・일본문화학류・3학년)

本発表はヴィーガンに焦点が当てられた日韓の文学作品を比較し、それぞれの作品におけるヴィーガンの表象の差異を明確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日本の作品としては宮沢賢治『ビヂテリアン大祭』を、韓国の作品としてはハン・ガン『菜食主義者』を取り上げる。両作品とも題と作中には“vegetarian”が使用されているものの、文中の描写からより厳密にはその概念が“vegetarian”よりも“vegan”に近いものであると判断し、本発表では両者ともヴィーガンとして取り扱う。なお本発表におけるヴィーガンの定義の射程として、食事と実践、思想に絞るものとする。

両作品の描写に共通する主な点は、ヴィーガンと肉食の人々との間での摩擦が発生すること、ヴィーガンの表象が陰気で無機的なのに対し、肉食の人々の表象は感情的で時として暴力性を孕みうることである。一方、両作品の大きな相違点はヴィーガン自体の持つ意味である。『ビヂテリアン大祭』で掘り下げられるのは、ヴィーガンとアンチヴィーガンとの問答、つまりはヴィーガニズムの本質である。全体を通して男性である主人公の視点で描かれるものの性差は何も含意していない。一方『菜食主義者』では、3人の登場人物の視点を通して、一人の女性が人間の持つ獣性からの脱却、さらには獣性を捨てるだけでなく人間から植物へと脱却しようとする姿が描かれている。ここではヴィーガンは、獣性を孕む人間から植物へというグラデーションにおける過程の一つにすぎず、獣性と相反するものとしての性格が強い。また、作品全体を通して男性の持つ獣性と女性の持つ植物性との対比が色濃く描かれている点で、この作品の本質はヴィーガニズムよりもエコフェミニズムに近いものとして解釈できる。

이 발표는 비건에 초점이 맞추어진 한일 문학작품들을 비교하여 각 작품에서 비건의 표상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이 있다. 일본의 작품으로는 미야자와 겐지 「비지테리안 (vegetarian) 대제」를, 한국 작품으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다루기로 한다. 두 작품 모두 제목과 작중에는 "vegetarian"이 사용되고 있으나 문중의 묘사로부터 보다 엄밀하게는 그 개념이 "vegetarian" 보다도 "vegan"에 가까운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 발표에서는 양자 모두 비건으로 취급한다. 또한 본 발표에서의 비건의 정의의 사정거리로서 식사와 실천, 사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한다.

두 작품의 묘사에 공통하는 주요한 점은 비건과 육식의 사람들 간에서 마찰이 발생한다는 것, 비건의 표상이 음침하고 무기적인 데 비해 육식의 사람들의 표상은 감정적이고 때로는 폭력성을 내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두 작품의 큰 차이점은 비건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이다. 「비지테리안 대제」에서 파헤치고 있는 것은 비건과 안티비건과의 문답, 즉 비거니즘의 본질이다. 전체를 통해 남성인 주인공의 시각에서 그려지지만 성별차는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채식주의자'에서는 세 명의 등장인물의 시각을 통해 한 여성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수성(獸性)으로부터의 탈피, 나아가 수성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게서 식물로 탈피하려는 모습을 그려져 있다. 여기서는 비건은 수성을 포함하고 있는 인간으로부터 식물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의 과정의 하나일 뿐 수성과 상반되는 것으로써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작품 전체를 통해서 남성이 가지는 수성과 여성이 가지는 식물성과의 대비가 색 짙게 그려져 있는 점에서 이 작품의 본질은 비거니즘보다는 에코페미니즘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学生発表4 「「共生」はいかに可能か?-他者論の観点から-

학생 발표 4 「공생은 어떻게 가능한가 -타자론의 관점에서-

中井澤卓哉 (なかいざわ・たくや/筑波大学教育学類・4年/쓰쿠바대학 교육학류・4학년)

本研究の目的は、共生を他者論の観点から捉え直し、原理的に相互理解が不可能である自己-他者の共生がいかに可能であるのかについて理論的検討を試みることである。本研究発表は3部構成をとる。

第1部では、共生が多文化共生言説の中でいかに位置づけられてきたのかを確認する。共生の理論的な位置付けを整理すると、「共生は目指すべき目的なのか、目標なのか、それとも事実として展開する過程なのか」(橋本2018)という3つの論点にまとめることができる。一方で、「国籍や民族などの異なる人々が、互いの文化的ちがいを認め合い、対等な関係を築こうとしながら、地域社会の構成員として共に生きていくこと」(多文化共生推進委員会2006)と定義される多文化共生においては、共生の理論的布置が一見引き継がれているようで、その内実がいったい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のかについては検討の余地が残る。

第2部では、共生を他者論の観点から論じる。共生という問題の射程には原理的に他者の存在が前提とされているが、多文化共生の言説においては、他者問題が真正面から議論されてきたとは言い難い。共生において他者が如何様に問題となるかを、フッサールからサルトル、さらにシェラーに引き継がれた「志向的な他者把握」という観点から捉える。

第3部では、他者を対象として貶めてしまう「志向的な他者把握」を、<責任>論に帰着させることによって乗り越えようとしながらも他者と自己の絶対化という形で形而上学に落ち込んでしまったレヴィナス、及びその絶対化による隘路を<自由>の最重要条件であるとして<責任>を定直し直した苫野に着目して、ヘーゲルの<相互承認>を敷衍しながら共生の社会原理を描き出す。最後に、その社会原理を元に、地域社会の多文化共生における実践上の課題に言及する。

본 연구의 목적은 공생을 타자론의 관점에서 다시 파악하여 원리적으로 상호 이해가 불가능한 자기-타자의 공생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론적 검토를 시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 발표는 3부 구성이 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공생이 다문화공생 언설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 왔는지를 확인한다. 공생의 이론적인 자리매김을 정리하면 「공생은 지향해야 하는 목적인가 목표인가 아니면 사실로서 전개하는 과정인가」(하시모토 2018)라는 3가지의 논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국적이나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면서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다문화공생 추진위원회 2006)으로 정의되는 다문화 공생에 있어서는 공생의 이론적 배치가 언뜻 보기에는 계승된 것 같지만 그 내실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남는다.

제2부에서는 공생을 타자론의 관점에서 논한다. 공생이라는 문제의 사정거리에는 원리적으로 타자의 존재가 전제로 되어 있지만 다문화공생의 언설에 있어서는 타자 문제가 정면으로부터 논의되어 왔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공생에 있어서 타자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를 후셀에서 사르트르 나아가 셀러에게 계승된 「지향적인 타자 파악」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제3부에서는 타자를 대상으로서 폄하는 「지향적인 타자 파악」을 <책임>론으로 귀착시킴으로써 극복하려고 하면서도 타자와 자기의 절대화라는 형식에서 형이상학에 빠져버린 레비나스 및 그 절대화에 따르는 애로를<자유>의 최중요 조건이라고 해서 <책임>을 다시 정위한苫野(토마노)에게 착목하고 헤겔의<상호승인>을 부연하면서 공생의 사회원리를 그려낸다. 마지막으로 그 사회원리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다문화공생의 실천상의 과제에 언급한다.

## 学生発表5 「在韓ムスリム二世の生活と文化的葛藤」

학생 발표 5 「한국 이주 무슬림 2세의 생활과 문화적 갈등」

安惠媛 (アン・ヘウォン/ (韓国外国語大学アジア言語文化大学 トルコ・アゼルバイジャン語科 二年)

今日の世界化に伴い、韓国もやはり急速に多文化社会へと進んでいるが、依然として多くの人々が見慣れない文化を前にして拒否感を現わしたりすることもある。特に「イスラム」に対する韓国人の抵抗感はかなり高い水準にある。韓国に相当数の移住ムスリムが居住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韓国人の大多数は「イスラム」が自分たちとは関係のない文化であると考えている。しかし、イスラム過激派によるテロなどによって韓国人はイスラムに関心を持ち始め、これが韓国在住のムスリムに対する関心につながった。問題は、イスラムに不慣れな韓国人が初めて接することになったのが、イスラム過激派に関するニュースだったという点である。韓国人の目にムスリムはテロリストと映った。人々は「イスラムフォビア (イスラム恐怖症)」にとらわれ、これは在韓ムスリムへの差別にまでつながった。特にISが登場した2010年代に生まれた在韓ムスリムの2世は、イスラムフォビア (イスラム恐怖症) の代表的なスケープゴートとなった。彼らは韓国に「同化」することを強要され、親と共有する文化的な違いにより差別にさらさ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果たして韓国社会は正しい多文化社会へと進んでいるのだろうか？ 2世たちを韓国社会に「同化」させることが真の「共生」と言えるのだろうか。誰かの犠牲の上に得られる共存であるならば、それは「共生」と見ることは出来ない。今回の発表では韓国在住ムスリム2世の生活と彼らが韓国社会で経験する文化的葛藤だけでなく、今後の韓国の多文化社会についても一緒に考えてみたいと思う。

오늘날 세계화에 따라 한국 역시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생소한 문화 앞에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이슬람’에 대한 한국인의 거부감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에 상당수의 이주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대다수는 ‘이슬람’이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문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들로 인해 한국인들은 이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 이주 무슬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슬람에 익숙하지 않았던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관한 뉴스였다는 점이다. 한국인의 눈에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로 비춰졌다. 사람들은 ‘이슬람포비아’에 사로잡혔고 이는 이주 무슬림에 대한 차별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IS가 등장한 2010년대에 태어난 이주 무슬림 2세는 이슬람 포비아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되었다. 그들은 한국에 ‘동화’될 것을 강요받았고 부모와 공유하는 문화적 차이로 차별에 노출되어야 했다. 과연 한국 사회는 올바른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2세들을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공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공존이라면 그것은 ‘공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번 발표에서는 한국 이주 무슬림 2세의 생활과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문화 갈등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 学生発表6 「オンライン上の多国籍子育て支援」

학생 발표 6 「온라인상의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椎葉奈子 (しば・なみ/筑波大学人間総合科学研究科看護科学専攻・博士前期課程2年/쓰쿠바대학 인간종합과학연구과 간호과학전공・박사전기과정 2학년)

【背景・目的】 非英語圏出身の外国籍母親へ、やさしい日本語を活用した子育て支援が必要といえる。また、COVID-19流行下において、非対面での子育て支援体制づくりも必要である。このため、子育て世代の母親と児を対象とした、オンライン上の多国籍子育て支援コミュニティを運営すること、その有用性を評価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

【方法】 地域で子育て支援を行うNPO団体kosodateはぐはぐとの共催で、やさしい日本語を共通言語とした座談会「にほんごでおしゃべり!」を開始した。運営メンバーには、助産師、日本語ボランティア教師、子育て経験者、大学院生・大学生、留学生などが携わっている。多国籍母子向けのトークテーマやレクリエーションを計画し、参加者の多国籍母親のニーズに応じて運営した。また、「にほんごでおしゃべり!」参加者のうち、同意の得られた者にフォーカスグループインタビューを実施した。

【結果】 地域で活動する多領域のメンバーが協働し、子育て相談やレクリエーションの企画・運営ができた。インド、中国、ベトナム、モンゴル、日本の母親が参加した。フォーカスグループインタビューでは、参加自体を楽しみにし、日本語学習、母国文化の共有、母親同士の交流を希望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また、やさしい日本語を用いた会話の補助に、Zoom機能を活用することが、会話の理解を促す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

【考察】 多国籍な母親に対する子育て支援に、やさしい日本語が活用できることが示唆された。地域での子育て支援場面において、やさしい日本語を導入することが有用であると考えられる。また、COVID-19流行による社会活動の制限がある中で、オンラインを活用した多国籍な子育て支援が、母親同士の交流や母親自身の楽しみに繋がり、日本で子育てを行う多国籍な妊産婦への社会的孤立の予防にも期待できる。気軽に参加可能な非対面での支援が有用であろう。

【배경・목적】 비영어권 출신의 외국 국적 어머니에게 쉬운 일본어를 활용한 육아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COVID-19 유행하에 있어서 비대면에서의 육아지원 체제 만들기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육아 세대의 모친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에서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방법】 지역에서 육아지원을 하는 NPO단체 kosodate 하구하구와의 공동주최로 쉬운 일본어를 공통언어로 한 좌담회 「일본어로 수다!」를 시작했다. 운영 멤버에는 조산사, 일본어 자원봉사 교사, 육아 경험자, 대학원생, 대학생, 유학생들이 담당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모자를 위한 수다의 주제와 레크리에이션을 계획하고 참가자인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의 수요에 맞게 운영했다. 또 「일본어로 수다!」 참가자 중 동의를 얻은 사람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했다.

【결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영역(多領域)의 멤버가 협동하고 육아 상담과 레크리에이션의 기획/운영이 생겼다. 인도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의 어머니들이 참석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참석 자체를 기대하며 일본어 학습, 모국 문화 공유, 어머니들 간 교류를 원하는 것이 밝혀졌다. 또 쉬운 일본어를 이용한 회화 보조에 Zoom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회화의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밝혀졌다.

【고찰】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에 대한 육아지원에 쉬운 일본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됐다. 지역에서의 육아지원을 실시하는 장면에서 쉬운 일본어를 도입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COVID-19 유행에 따른 사회 활동에 제한이 있는 가운데 온라인을 활용한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이 어머니들 간의 교류나 어머니들의 자신의 즐거움으로 이어져 일본에서 육아를 하는 다문화가정 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고립 예방에도 기대할 수 있다.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는 비대면에서의 지원이 유용할 것이다.